도전과 용기…격동의 세기 25인의 꿋꿋한 삶

역사에 불꽃처럼 맞선 자들

강부원 지음

관상용 꽃이 되길 거부한 열혈 독립운동가 정칠성, 조선 독립운동가들의 숨겨진 리더 남자현, 조선 최초의 비행사 서왈보, 한국 바이러스 연구의 개척자 이호왕, 한국 영화의 개척자 나운규 등….

지난 세기를 격동의 20세기라고 한다. 그만큼 역동적이었고 가변적이었다. 시대는 영웅을 부른다는 말이 있다. 격변의 시대일수록 시대와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간 이들이 있었다. 세상과 맞추지 않고 도전과 변화를 감행했던 이들이 있었기에 천편일률적인 질서에 균열을 낼 수 있었다.

'역사에 불꽃처럼 맞선 자들'을 펼치면 지난 세기에 새로운 세상을 꿈꾼 25명의 삶과 조우할 수 있다. 정형화된 세상의 시선에 갇히지 않고 드라마틱한 삶을 산 이들의 이야기는 모험과 충돌을 넘어 우리의 근현대사이기도 하다.

저자는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연구원인 강부원 작가로, 그는 책에서 인물들의 업적과 명성보다는 다른 면을 주목하라고 당부한다. 처절하고 외로운 삶을 산 이들을 보며 '나만 고통스럽고 힘든 건 아니구나'라는 위로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스물다섯 명의 인물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발견된다. 투옥이나 죽음을 불사하고서라도 끝내 지키려 한 삶의 원칙이 있었다. 자유와 평등, 여성 해방과 노동 해방,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등등, 추구했던 목표는 각자 달랐지만, 자신이 삶의 원칙으로 세운 가치들을 실천하기 위해 평생 노력했다. 곰곰 돌이켜보면, 모두 공동체의 '사랑'과 '평화'와 '행복'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던진 존재들이었다."

민족의 서사를 화폭에 담았던 이쾌대 작가의 '군상 I -해방고지' 〈믹스커피 제공〉

책은 모두 3부로 구성돼 있다.

1부는 세상에 맞서 싸웠던 여성들이 주인공이다. 한국 최초의 고공투쟁 노동자 강주룡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간 가장 낮은 자'다. 평양 평원고무공장 노동자였던 그녀는 평양의 상징인 을밀대에 올라 농성을 했다. 세계 공황 여파로 조선고무공업계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당시 하루 15시간을 일해도 고무신 한 켤레 값도 못 되는 일당을 받던 노동자에게 임금 17% 삭감 통보가 내려졌다. 강주룡은 일제 권력과 결탁한 자본가들을 비판하며 반대 투쟁을 전개했다.

위안부 참상을 최초 공개한 김학순의 용기 있는 결단도 나온다. 1994년 도쿄지방법원에서 증언한 김학순에 의해 일본 정부는 명백한 가해자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2부에서는 최초 도전을 감행한 이들을 소개한다. 크리스마스 씰의 기원이 된 조선 최초 여의사 김점동을 비롯해 일본 천황을 암살하려했던 아나키스트 혁명가 박열, 풀뿌리 독서운동의 기수 엄대섭의 이야기가 나온다. 또한 세계 최초 '유행성출혈열'의 원인인 바이러스를 발견한 이호왕은 원인균을 발견하고 전파경로를 찾았으며 진단법과 예방백신을 개발했다. 그는 "내 유전자는 실패해도 포기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겼다.

3부는 시대와 불화했던 이들을 조명한다. 벌거벗은 운명에 맞서 자유를 꿈꾼 문학소녀였던 전혜린과 4·19 직후 혜성처럼 등장한 천재 작가 김승옥의 이야기가 나온다. 이밖에 격동기 한국인이 경험한 역사적 순간을 입체적으로 구현해 '한국의 미켈란젤로'로 불린 화가 이쾌대, 조선인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선사한 영웅이었지만 일제에게 두려움을 안긴 영화 '아리랑'의 감독 나운규의 도전과 열정은 삶의 원칙과 가치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믹스커피·1만7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마음 나눈 사람들에 대한 애틋함…김연덕 시인의 진솔한 일기

액체 상태의 사랑

김연덕 지음

사실, 누군가의 일기를 읽는 건 좀 어색한 일이기는 하다. 일기를 공개하는 사람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일 터. 그럼에도 일기를 엮어 책을 내고, 사람들이 그 글을 읽는 건 그 속에 담긴 일상과 이야기들이 문득, '나에게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민음사가 펴내고 있는 '매일과 영원' 시리즈는 하루하루 지나가는 '일상의 기록'과 시간을 넘어 오래 기록되는 '문학 이야기'를 함께 엮은 기획이다. 작가들이 써 내려간 일기이자, 그들의 문학론인 셈이다.

이번에 '액체 상태의 사랑'을 펴낸 김연덕 시인은 '사랑'에 대한 시를 줄곧 써왔다. 2018년 '대산문학상'을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하고 지난해 첫 시집 '재와 사랑의 미래'를 낸 저자는 시상식에서도 '사랑과 사랑의 힘'에 대해 이야기했다.

2019년 2월20일부터 시작해 2022년 3월19일까지 써 내려간 글은 솔직하다. 헤어진 애인을 생각하다 울음을 터트리기도 하고, 좋아하는 이들에 대한 마음도 잘 고백한다. 조금은 조심스러운 듯한 문장으로 나긋나긋 곁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하다.

여러 편의 글 속에서, 인상적인 건 마음을 나누고 인연을 맺은 '사람들'에 대한 애틋함이다.

2021년 12월의 일기에는 광주에서 만난 39세 연상의 '애화씨' 이야기가 실렸다. 글쓰기 수업을 위해 광주에 내려온 그는 어린 선생의 수업에서 가장 많이 고개를 끄덕이고, 눈으로 많은 말들을 해 준 애화씨의 제안으로 광주극장을 찾아 영화 '고양이를 부탁해'를 함께 보고, 간판실 등 극장 구석구석을 구경한다.

그리고 2개월이 지난 후 서울을 찾은 그와 함께 '자신이 아끼고 좋아하는' 공간에 머물고 애화씨가 자신에게 주었던, '다른 세계에 대한 애정'이라는 신비한 창을 먼 훗날 누군가에게 내 줄 수 있기를 바란다.

헤어져 있어 애틋함이 깊어진, 도쿄에서 살고 있는 쌍둥이 혜덕과 원로목사가 모아온 일본 신학자들의 오래된 고서적을 일일이 닦고, 오래된 옛집을 함께 찾는 부모에 대한 이야기도 눈길을 끈다.

그녀가 다녀갔고, 마음을 둔 공간들은 한번쯤 방문하고 싶어진다. 그녀는 신자도 아니면서 집 앞 성당 봉헌초 함에 초를 넣고 그 초들이 바닥을 보이며 타들어가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친구들을 데려가 그들이 어떤 색의 초를 고르는지, 어떤 표정으로 불을 붙이는지도 본다.

또 일기에 등장하는 앤 카슨의 시집 '짧은 이야기들', 미즈노 루리코의 '헨젤과 그레텔의 섬', 아니 에르노의 '사진의 용도', 존 버거의 책들은 한 번쯤 읽어보고 싶게 만든다. 책 갈피 갈피에 '재와 사랑의 미래', '놀라지 않는 이 사랑의 삶' 등의 시를 함께 실었다.

지금까지 문보영(일기시대), 강지혜(오늘의 섬을 시작합니다), 유계영(꼭대기의 수줍음), 소유정(세 개의 바늘) 작가의 책이 출간됐고, 앞으로 소설가 정용준의 '소설만세'(가제)가 예정돼 있다. 〈민음사·1만4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독일은 왜 잘하는가=영국의 대표적인 방송인이자 국제평론가로 베스트셀러 '블레어의 전쟁'의 저자이기도 한 존 캠프너의 신작. 20대부터 동·서독을 오가며 특파원으로 활동한 저자가 세계2차대전 전후 75년 간 현대 독일의 놀라운 변화를 분석했다. 자존심 센 영국인이 독일을 극찬하며 독일 사회의 경쟁력과 회복력을 흥미진진하게 담아냈다. 〈열린책들·2만3000원〉

▲헤르만 헤세의 책이라는 세계=헤르만 헤세는 작가이기 이전에 근면한 독자였다. 이 책은 헤르만 헤세가 사랑한 불멸의 고전과 폭넓은 문학관을 들여다 볼 수 있게 해주는 책에 관한 에세이다. '헤르만 헤세의 독서의 기술' 개정판으로 '도덕경', '논어', '로빈슨크루소' 등 그의 마음을 끈 책들을 소개하며 책을 고르고 읽는 방법을 알려준다. 〈뜨인돌출판·2만2000원〉

▲궁금하지만 물어보기엔 애매한 학교도서관 이야기=황왕용·임정훈·구혜진·김주애 이렇게 네 명의 현직 사서선생님이 도서관 재구조화·학교 업무·도서관 이용자와의 관계·프로그램 운영 등 학교도서관을 둘러싼 다양한 질문은 추려 꼼꼼하게 답변했다. 사서교사들이 겪는 고민을 사려 깊게 풀어 냈다. 〈학교도서관저널·1만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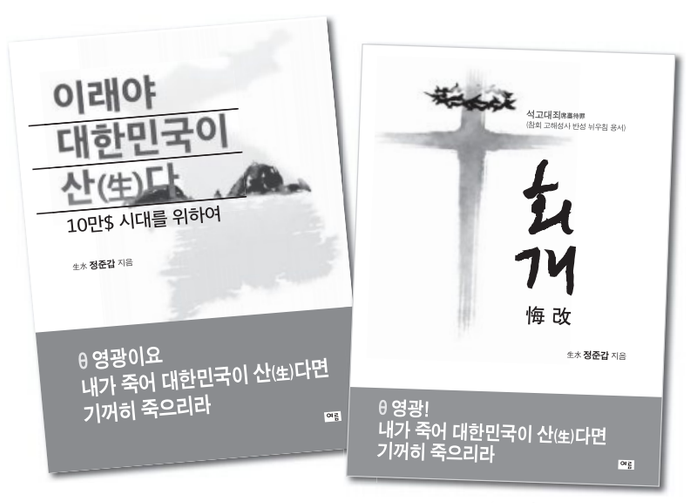
▲언제나 밤인 세계=국내 환상 문학의 중흥기를 이끌었다고 평가받는 하지은의 신간. 샴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서로 운명이 엇갈려 버린 두 남매의 애증을 그린 판타지 스릴러로 하지은 작가의 7년만의 장편 신작. 분리 수술로 하반신이 절단되고 부모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소녀 '아길라'가 펼치는 복수극으로 '판타지'와 '스릴러'를 결합시켰다. 〈황금가지·1만68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우리는 모두 시궁창에 빠졌네 책과 가아이와 함께=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 미국 국가예술상 등을 수상한 모리스 샌닥의 서거 10주기를 맞아 출간된 네버랜드 세계의 걸작 그림책 283번째 책. 그의 작품 중에 가장 가장 어둡고 가장 논쟁적이지만 가장 희망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우리가 직면한 사회적 병폐를 보여주면서 어린이 독자들을 현실의 세계로 안내한다. 〈시공주니어·1만4000원〉

▲더하기 빼기 원정대=고양이를 주인공으로 한 그림책을 펴내고 있는 일본의 동화작가 니와의 신작. 동네 고양이 10마리가 알쏭달쏭한 수수께끼가 잔뜩 적힌 지도를 들고 보물을 찾아 떠나는 이야기로, 유아기 아이들에게 수학을 놀이로 즐기며 접하도록 그려냈다. 수의 합성, 분해와 같은 개념뿐 아니라 수학적인 관점과 사고를 익히는 데 도움을 준다. 〈우리교육·1만5000원〉

▲엉엉엉='노를 둔 신부'와 '빨간 안경'을 쓴 오소리 작가가 '울고 있는 나를 찾아가는 위로와 치유의 여정'을 주제로 펴낸 그림책. 어디선가 자꾸만 울음소리가 들려와 힘든 적 있다. 그런데 그 울음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나 자신었다면? 누구나 괜히 화가 나고 짜증날 때, 이유도 없이 자꾸 눈물이 날 때가 있다. 주인공 곰쥐는 어떻게 감정을 이겨내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을까. 〈이야기꽃·1만4000원〉



生水 정준갑 지음 | 17,000원 | 13,000원 | 도서출판 여름(문의 : 02-2278-6990)

대죄인 **정 준 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고난주간(4.11.~4.17.)

＊책 내용을 宗教적으로만 보지말고 精神으로 보아주시고 아파트경비원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록한 글

＊저자에게 주어진 도서 수익금은 전액 공익 기부함.

독도는 우리 땅 대마도도 우리 땅 혼슈우는 즈그땅
(쓰시마)

아! 大 한국人이여! 일어나라
아! 大 한국人이여! 깨어(나)라
아! 大 한국人이여! 거듭나라
가슴·마음속에 숨어있는 민족 얼·혼·恨·통분·울분에
함성을 함께 외쳐라·뭉쳐라·밝혀라·세워라·행하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하는 길로 간다.
(회개/고해성사/참회/반성/뉘우침)

1인당 국민소득 10만＄ 시대가 보인다.

타도하자 공산 독재주의
바로 알자 공산주의 사상
때려잡자 공산당
쳐부수자 마귀/귀신 미혹의 영
일깨우자 사회주의
개선하자 자유민족주의
바로 세우자 자유민주공화국
정립하자 자유민주주의
개벽하자 타락한 세상(세계)

온고지신(溫故知新)하는 정권이 되기를~

★창조주 여호와 θ께 회개하오며 국민께 고해성사와 참회를 하오니
괴수·금수만도 못한 이 죄인을 용서하옵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거니와 θ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8-28)

★이 책은 대한민국을 구제할 민족정신지도자 66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죄인이 국민·광주시민·호남인에게 드리는 글이 있습니다.

★전국광역시/도 및 각 시·군·구에 33인 정신지도자 선정.
[개신교 16인, 천주교 8인(성공회 1인 포함), 불교 8인(원불교 1인 포함), 유림1인]

詩 : 恨
무등산아! 무등산아! 너는 왜 그러고 있니!
나는 하염없는 인생이다만,
너까지 하염없는 모습으로 그러고 있니!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다고 하여도,
너는 떳떳한 것을,
왜 그리 처량하니 지켜만 보고 있니!
자존심을 지켜다오. 자긍심을 살려다오.
자존감을 올려다오.
무등산아! 무등산아! 울지 마라. 무등산아!
힘내어라. 무등산아!